

# 수산업에 대한 시각을 넓히자

25 일 취임식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 지향 원칙에 따라 그 동안 본 협회의 주무 부처였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산부문은 농수산식품부로, 항만 물류 해양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이관된다.

이러한 업무 분할은 각 부문의 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합집산,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요, 실제 상황이다. 모든 것이 척박한 우리나라 육상자원에 비해 그래도 수산자원은 풍부한 축에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수산업이 위축되고 사양화의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고전적인 답변이지만 수산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수산업에 대한 시각이 좁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이는 비단 수산업부 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1차 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유독 수산업부문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까닭은 사양화의 속도가 다른 1차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기준 어업종사자의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50~59세가 31.7%, 40~49세가 22.8%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무려 22.2%를 차지하고 있다. 한 나라의 인구 상황을 말할 때 보통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일 경우 노령화 사회로, 12% 이상을 노령사회로 본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우리 어촌의 22.2%는 실로 상상을 뛰어 넘는 노령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우리가 수산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것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농업이나 광업 등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수산업은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개발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득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수산업 하면 으레 단순히 각종 수산물을 잡아들이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고작이었다. 물론 그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수산업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돌아갈 마음의 고향을 찾게 되었다. 바로 어촌 어항이 그 대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수산업이 단순히 바다에 나가 고기나 잡는 산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 휴양지로서의 역할과 해양문화관광단지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도모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수산물을 통한 단순한 어업소득과 함께 어업의 소득을 극대화함으로써 풍요한 어촌사회를 만드는 것이 수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는 어촌의 문화 창달, 어촌의 관광지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모델 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국민들의 정서 함양을 통한 어업의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실제로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시 위주의 캠페인이 아니고 도시와 어촌에 모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 지속적인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거창한 경제이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어촌이 잘 살게 되면 수산업이 활성화 되고 어업인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방법은 어업인의 소득을 올리는 길뿐이다.

바다는 영원하다. 어떤 경우에도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이 달라질 수 없다. 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바다에 대해, 수산업에 대해 시각을 넓히자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좋은 것도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